

『醫學入門·腰痛』의 문헌 근거 - 『東醫寶鑑·腰痛』과 비교 -

¹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趙學俊¹ *

Reference Research on Low Back Pain in *Uihagimmun*(醫學入門) - Compared with *Donguibogam*(東醫寶鑑) -

Jo Hak-jun¹ *

¹Dept. of Korean Medicine Classics & Medical History, Semyung University

Objectives : In order to research references on low back pain in *Uihagimmun*

Methods : In respect of causes, symptoms and prescriptions for all kinds of low back pain, enlarging the range of references from books regarded as its references in *Jiprye*(集例) to books referred in *Yeokdaeuilhakseongssi*(歷代醫學姓氏).

Results : Beside of the books referred in *Jiprye*(集例) such as *Seuideukhyobang*(世醫得效方), *Dangyesimbeop*(丹溪心法), *Okgimiu*(玉機微義) and *Injeikji*(仁齋直指), the other reference books must be *Sanghannori*(傷寒論), *Geumgweoryak*(金匱要略), *Samingeugilbyeongbangjeungnori*(三因極一病證方論), *Jebyeongwonhurori*(諸病源候論), *Jesaengbang*(濟生方), *Dongwonsihyobang*(東垣試效方), *Maeginjeungchi*(脈因證治), *Bojebang*(普濟方), *Uihakjeongjeon*(醫學正傳), *Jeungchiogyeo*(證治要訣), *Uihakgangmok*(醫學綱目), *Manbyeonghoechun*(萬病回春), *Gogemuigam*(古今醫鑑) and *Susebowon*(壽世保元) etc.

Conclusions : Icheon(李梴), the author of *Uihagimmun*, referred not only to books mentioned in *Jiprye* but to books referred in *Yeokdaeuilhakseongssi*. This book had important effect on making the contents of low back pain in *Donguibogam*(東醫寶鑑).

Key Words : Reference Research, Low Back Pain, *Uihagimmun*(醫學入門)

I. 序 論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한의학 표준화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광1)의 연구는腰痛에 대한 한의학 표준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할 수

* 교신저자 : Hak-jun Jo, 202,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65, Semyeong-ro, Jecheon-si, Chungcheongbuk-do, Korea. Tel: 82-43-649-1347. Fax: 82-43-649-1702. E-mail: palm01@hanmail.net
접수일(2014년 04월28일), 수정일(2014년 05월15일),

게재확정일(2014년 05월16일).

1) 광현영, 남동우, 강중원, 김은정, 김갑성, 최도영, 이재동. 고전에 나타난腰痛 및 관련 전신 증상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2009. 26(6).

있다. 그는 『內經』에서부터 『東醫寶鑑』에 이르기까지 15가지 醫書를 근거로 각종 腰痛 및 관련증상에 대해 한의학적 분류를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그러나 각종 腰痛의 由來나 變遷 등에 대하여 자세히 밝히지 않고, 『東醫寶鑑』의 10종 腰痛의 분류체계가 그중 가장 우수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腰痛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하려면, 각종 腰痛의 由來와 變遷을 먼저 탐색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문헌 근거를 밝혀야 한다.

현재까지 腰痛에 대한 한의계의 연구로서 엮²⁾, 이³⁾, 성⁴⁾, 김⁵⁾, 엄⁶⁾은 『東醫寶鑑』의 十種腰痛과 관련한 고찰을, 광⁷⁾은 腰痛의 분류를, 정⁸⁾은 腰痛의 원인과 鍼灸治療를, 정⁹⁾은 腰痛의 病理를, 김¹⁰⁾은 내과적 腰痛의 臨床 통계를 다룬 적이 있다. 또한 안¹¹⁾은 『諸病源候論·腰痛病諸候』에 대해 번역하고, 성¹²⁾은 『辨證論』의 腰痛處方의 특징을 고찰하고, 김¹³⁾은 한국과 중국에서 사용하는 腰痛의 辨證 이용 빈도를 비교하였다.

이처럼 『東醫寶鑑·腰痛』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

발하나, 『東醫寶鑑』에서 많이 인용한 서적 중 하나인¹⁴⁾ 『醫學入門』 중의 腰痛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中醫學에서는 현재 腰痛에 대해 주로 내과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¹⁵⁾¹⁶⁾, 간혹 치료 측면에서 외과적인 관점으로 다루고 있고,¹⁷⁾ 북한의 연구도 대체로 중국과 비슷하다.¹⁸⁾ 또한 腰痛의 沿革에 대한 연구도 이미 이루어져 있으나¹⁹⁾²⁰⁾, 중국과 북한의 연구자 역시 『醫學入門·腰痛』에 대해 주목하지 않고 있다.

『醫學入門』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各家를 종합하여 완성한 것으로 특출한 점은 없다고²¹⁾ 내려져 있지만, 『東醫寶鑑』의 十種腰痛을 기준으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醫學入門·腰痛』에 누구의 어떤 學說이 반영되어 있는지, 그 성과와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각종 腰痛의 문헌 근거를 마련하고자 『醫學入門·腰痛』이 어떤 서적에서 근거하여 기술되었는지 검색해보고, 『東醫寶鑑·腰痛』과의 관련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本 論

『醫學入門』에 나타난 각종 腰痛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醫學入門』에서 사용된 腰痛의 분류방식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醫學入門』은 歌訣의 형태로 여러 腰痛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腰痛의 명칭으로 삼기 곤란한 점이 있다. 따라서 『醫學入門』과 관련한 서적을 참고해서

- 2) 엄승철, 이건목, 이길승, 김성철. 東醫寶鑑의 十種腰痛에 根據한 腰痛患者의 臨床的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2005. 22(4).
- 3) 이태식, 박태숙. 東醫寶鑑 十種腰痛의 形象醫學的 考察. 대한한성학회 학술대회논문. 2005. 6(1).
- 4) 성수민, 박민재, 김정숙, 황민섭, 윤종화. 十種腰痛 중 食積濕熱 腰痛의 증례보고. 대한침구학회지. 2005. 22(4).
- 5) 김홍균. 『醫林撮要』와 『東醫寶鑑』의 비교고찰 -腰痛을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2000. 13(1).
- 6) 엄동명, 송지정, 심현아. 『醫門寶鑑』 「腰痛門」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12. 25(1).
- 7) 광현영, 남동우, 강중원, 김은정, 김갑성, 최도영, 이재동. 고전에 나타난 腰痛 및 관련 전신 증상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2009. 26(6).
- 8) 정선희, 이재동, 박동석. 腰痛의 原因 및 鍼灸治療에 대한 文獻的 考察. 대한침구학회지. 1996. 13(1).
- 9) 정현우, 나장수, 윤여충, 정우열. 腰痛에 對한 東醫學的 病理 및 臨床治療(I). 대한동의병리학회지. 1996. 10(2).
- 10) 김인상, 최현, 문석재, 박호식. 脾胃內科 領域에서 본 腰痛의 臨床的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1988. 9(1).
- 11) 안민식, 정현영. 諸病源候論腰痛病諸候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3. 17(3).
- 12) 성시열, 국운범. 陳士鏗의 腰痛 處方研究. 대한한의학회지. 2010. 18(1).
- 13) 김민우 외 12인. 한국과 중국 논문에서 사용된 요통 변증에 관한 고찰. 2013. 23(2).

- 14) 허준. 동의문헌연구실 譯. 신증보대역 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2012. p.3.
- 15) 『臨床中醫內科學』編委會. 臨床中醫內科學(上). 北京. 北京出版社. 1997. p.1131.
- 16) 楊思樹, 張樹生, 傅景華 主編. 안세영 譯. 東醫臨床內科學(II). 서울. 법인문화사. 1999.
- 17) 王守東, 劉柏齡 主編. 中醫骨傷科 臨床手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 18) 東醫學研究所 편저. 東醫外科學. 서울. 여강출판사. 1994.
- 19) 『臨床中醫內科學』編委會. 臨床中醫內科學(上). 北京. 北京出版社. 1997. p.1131.
- 20) 張伯貞 主編. 中醫內科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pp.543-545.
- 21)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7. p.259.

『醫學入門』	『醫部全錄』	『雜病源流犀燭』	『東醫寶鑑』	本論文
1.外感暴痛 寒背拘	1.外感分經	1.寒(腰痛)	1.寒腰痛	1.寒腰痛
2.濕痛重著	2.濕熱	2.濕(腰痛)	2.濕腰痛	2.濕腰痛
3.熱煩躁		3.熱(腰痛)	3.濕熱腰痛	3.熱腰痛 (濕熱腰痛)
4.風牽脚膝 強難舒 (風熱,風虛,風寒濕)	3.風邪	4.風(腰痛)	4.風腰痛	4.風腰痛 (風熱,風虛,風寒濕)
5.內傷失志腰膨脹 憂怒腹脇痛相須	4.內傷七情	5.氣(腰痛)	5.氣腰痛	5.失志腰痛 (鬱怒傷肝, 憂思傷脾)
6.痰運背脇	5.濕痰流注	6.痰飲(腰痛)	6.痰飲腰痛	6.痰腰痛
7.積難仰	6.飲食滯鬱	7.痰積(腰痛)	7.食積腰痛	7.食積腰痛
8.閃剝痲逆 夜偏呼	7.閃挫癡瘀	8.瘀血(腰痛)	8.瘀血腰痛	8.閃挫腰痛 (瘀血腰痛 포함)
		9.挫閃(腰痛)	9.挫閃腰痛	
9.作勞血脈 難周養	8.作勞傷腎			9.勞傷腰痛
10.房慾悠悠 或軟如 (新久總腎虛)	9.色慾傷腎	10.腎虛(腰痛)	10.腎虛腰痛	10.房勞腰痛
	10.腎虛			

표 1. 『醫學入門』과 관련한 각종腰痛의 분류방식 比較

名稱을 정하고자 한다.

『醫部全錄』에서 『醫學入門·腰痛』의 全文을 인용하면서 外感分經, 濕熱, 風邪, 內傷七情, 濕痰流注, 飲食滯鬱, 閃挫癡瘀, 作勞傷腎, 色慾傷腎, 腎虛 등 10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22) 沈金鰲는 『雜病源流犀燭·腰臍病原流』에서 “腎虛, 痰飲, 痰積, 挫閃, 瘀血, 風, 寒, 濕, 熱, 氣 등 모두 10가지가 있다.”²³⁾라고 하였다. 沈金鰲의 분류는 『東醫寶鑑』과 매우 비슷하다.

『東醫寶鑑』은 각종腰痛을 寒腰痛, 濕腰痛, 濕熱腰痛, 風腰痛, 氣腰痛, 痰飲腰痛, 食積腰痛, 挫閃腰痛, 瘀血腰痛, 腎虛腰痛의 10가지로 분류하였다.²⁴⁾

『醫學入門』의腰痛 분류방식, 인용서적, 인용내용 등을 비교해 보면 許浚이 『東醫寶鑑·腰痛門』을 지을 때 『醫學入門』을 참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醫學入門』은 『東醫寶鑑』처럼 간결하고 적합한腰痛의 명칭이 없으며, 『東醫寶鑑』의 10종腰痛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따라서 필자는 세서적의 분류를 참고하여 李梴의 분류 의도를 잘 살리면서도 간결한 명칭을 정하였다.

즉, 寒腰痛, 濕腰痛, 濕熱腰痛, 風腰痛(風熱,風虛,風寒濕), 失志腰痛(鬱怒傷肝,憂思傷脾), 痰腰痛, 食積腰痛, 閃挫腰痛(瘀血腰痛 포함), 勞傷腰痛, 房勞腰痛 등의 10가지 명칭으로 분류하였다.

『醫學入門』의 요통 분류에 대해 『醫部全錄』, 『雜病源流犀燭』, 『東醫寶鑑』, 本論文의 요통 분류를 서로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腰痛의 분류방식으로 살펴보면 『東醫寶鑑·腰痛門』은 『醫學入門』을 거의 그대로 따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醫學入門』에 나타난 각종腰痛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醫學入門·腰痛』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용되었다고 판단되는 서적을 검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醫學入門』의腰痛에 대한 내용은 「雜病篇」에 실려 있다. 「集例」에 의하

22) 陳夢雷, 蔣廷錫 等 著. (圖書集成)醫部全錄. 서울. 대성문화사. 1986. pp.20-22.

23) 沈金鰲. 沈金鰲醫學全書雜病源流犀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37. “『入門』曰 …… 腰痛有十, 有腎虛, 有痰飲, 有痰積, 有挫閃, 有瘀血, 有風, 有寒, 有濕, 有熱, 有氣, 凡十種.”

24) 허준 著. 동의문헌연구실 譯. 신증보대역 동의보감. 서울. 법민문화사. 2012. p.782.

면 「雜病篇」은 『世醫得效方』²⁵⁾, 『丹溪心法附餘』²⁶⁾, 『醫方捷徑』²⁷⁾, 『醫學權輿』²⁸⁾, 『玉機微義』²⁹⁾, 『袖珍方』³⁰⁾, 『仁齋直指』³¹⁾ 등을 인용하였다고³²⁾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책들은 『醫學入門』에서 직접 인용한 서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集例」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는 간접적으로 인용한 서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歷代醫學姓氏」³³⁾에서 언급한 인물들의 저서는 李梴이 『醫學入門』을 저술할 때 참고했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 예를 들어 張仲景, 陳無

擇, 巢元方, 嚴用和, 李東垣, 朱震亨, 虞搏, 戴元禮, 劉純, 龔廷賢 등의 醫家의 서적이 이에 해당된다.

「集例」와 「歷代醫學姓氏」의 두 가지 기준으로 관련된 서적 중에서 어느 부분을 인용하여 『醫學入門』을 저술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아울러 『醫學入門』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은 『東醫寶鑑』의 내용과 인용서적을 『醫學入門』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寒腰痛

李梴은 『醫學入門』에서 “傷寒인 경우 반드시 六經證에 의하여 藥을 사용한다. 보통의 感冒인 경우 갑작스럽게 아파서 능히 허리를 돌리지 못한다. 가령 寒이 腎을 상한 경우는 날씨가 찬 때를 만나면 腰痛이 발생하여 등과 이어져 당기고 脈이 沈弦緊하다. 五積散에 吳茱萸, 杜仲, 桃仁을 더하되, 통증이 심하면 黑牽牛를 조금 더한다. 四肢가 厥冷하는 경우는 古薑附湯을 사용한다. 어깨와 등까지 이어져 아픈 경우는 通氣防風湯을 사용한다. 그 외에 摩腰丹과 屈伸導法이 있다.”³⁴⁾라고 하였다.

李梴은 寒腰痛의 원인에 대해 六經으로 나타나는 傷寒과 感冒 2가지를 말하고 있다. 특히 ‘寒傷腎’은 『濟生方』의 五積散의 主治³⁵⁾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東醫寶鑑』 등 後世 醫書에서는 대부분 感冒와 관련된 腰痛을 주로 언급하고 있다.

李梴은 특히 寒腰痛을 外感腰痛으로 간주하였기에 그 症狀에 대해 ‘갑작스럽게 아파서 능히 허리를 돌리지 못한다.’고 하여 新腰痛(寒腰痛 등 外感腰痛)이 久腰痛(房勞腰痛 등 內傷腰痛)과 다른 특징을 처음 언급하였다.

寒腰痛의 명칭과 脈象(沈弦緊)은 嚴用和는 『濟生方·腰痛門』에서 처음 제시하였다.³⁶⁾

25) 危亦林. 世醫得效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12) 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p.124-126.

26) 朱震亨 著. 方廣 編註. 丹溪心法附與. 서울. 大星文化社. 1990.

27) 明代에 발간된 『醫方捷徑』은 『醫方捷徑指南全書』(王宗顯. 醫方捷徑指南全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1.)와 『醫方捷徑』(羅必煒. 醫方捷徑. 北京. 全國圖書館文獻縮微復制中心. 2004.)의 두 종류가 있다. 한편 『中國醫籍考』(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798.)과 『古今醫統大全』(徐春甫. 古今醫統大全. 서울. 아울로스출판사. 1994. p.61.)에는 王宗顯의 서적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28) 『醫學權輿』는 현재 온전히 전해지지 않고 있다. 『醫學入門·歷代醫學姓氏』에는 虞搏의 저서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古今醫統大全』에는 傅滋의 저서라고(徐春甫. 古今醫統大全. 서울. 아울로스출판사. 1994. p.61.) 밝히고 있고 『中國醫籍考』에는 王文煥 百家名書에 4권 중 1권만 간행되어 남아 있으며, 著者나 編者를 알 수 없다고(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747.) 밝히고 있다. 한편 金主표는 『新對譯 編註醫學入門』에서는 『醫統』의 기록에 따라 明代 孫笙의 저서라고(金主표. 新對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193.) 보았다.

29) 劉純. 劉純醫學全書玉機微義.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665-672.

30) 『古今醫統大全』에 明代 瀋陽王府에서 모아 간행한 4권이 있었다고(徐春甫. 古今醫統大全. 서울. 아울로스출판사. 1994. p.54.) 기록하고 있으나, 『中國醫籍考』에 의하면 『袖珍方』에 대한 기록은 없다. 현재 明代 저자 미상의 『新刊袖珍方大全』(저자 미상. 新刊袖珍方大全. 全國圖書館文獻縮微復制中心. 2004.)이 전해오고 있다.

31) 楊士瀛. 仁齋直指(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12) 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32)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91. p.15. “雜病竊危氏『得效方』意, 及丹溪用藥總法, 而提其風寒, 暑濕, 燥火, 氣血, 痰鬱大綱於前, 稍從『丹溪附餘』, 小目分類於後. 其歌括一以『捷徑』, 『權輿』爲主, 而改補之, 更用『玉機微義』, 『袖珍』, 『仁齋直指』, 葛氏等方分註於下.”

33)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91. p.15, 223. pp.131-188.

34)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514. “【外感暴痛 寒背拘】傷寒, 必依六經證用藥. 尋常感冒, 暴痛不能轉側, 如寒傷腎者, 遇天寒發, 連背拘攣, 脈沈弦緊. 五積散, 加吳萸 杜仲 桃仁. 痛甚, 加黑牽牛 少許. 肢厥者, 古薑附湯. 連肩背者, 通氣防風湯, 摩腰丹, 屈伸導法.”

35) 嚴用和. 嚴用和醫學全書重輯嚴氏濟生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73. “五積散. 治寒傷腎經, 腰痛不可仰俯方.”

36) 嚴用和. 嚴用和醫學全書重輯嚴氏濟生方. 北京. 中國中醫

寒腰痛의 處方으로 五積散에 桃仁을 더한 것은 陳無擇이 처음 사용하였고³⁷⁾, 五積散에 吳茱萸, 杜仲을 더한 것은 朱丹溪가 처음 사용하였으며³⁸⁾, (古)薑附湯은 危亦林이 처음 사용하였고³⁹⁾, 通氣防風湯은 李東垣의 『內外傷辨論』에 처음 사용되었고,⁴⁰⁾ 摩腰丹은 『丹溪心法』에서 老人腰痛을 치료할 때 처음 사용되었다.⁴¹⁾ 한편 屈伸導法은 『醫學入門·導引法』에서 소개되고 있으나⁴²⁾ 그 근거는 찾지 못하였다.⁴³⁾

許浚은 『東醫寶鑑』에서 “寒邪가 腎經을 손상시켜 생긴 腰痛으로 몸을 잘 돌리지 못하는데, 뜨겁게 해주면 통증이 줄어들고 차게 하면 통증이 발작한다. 脈은 沈弦急하다. 이때는 五積散에 吳茱萸·杜仲·桃仁을 더하여 쓴다. ○통증이 심하면 黑丑(가루)一錢을 더하여 타서 복용한다.(入門) ○통증이 심하면 加味龍虎散을 복용한다.(入門) ○代灸膏를 腰眼穴에 붙인다.”⁴⁴⁾라고 하였다.

許浚이 『東醫寶鑑』에서 제시한 寒腰痛의 原因, 脈象, 處方(五積散 加味)은 대체로 『醫學入門』과 일치하나, 뜨겁게 해주면 통증이 줄어든다는 등의 症

狀特徵은 『丹溪心法』의 寒濕腰痛의 症狀을 따랐다.⁴⁵⁾ 또한 加味龍虎散은 『醫學入門』중 「腰痛」에 실려 있지 않고, 뒤쪽의 「雜病用藥賦」에 처음 실려 있으며⁴⁶⁾, 다른 서적에는 있지 않다.

2. 濕腰痛(寒濕腰痛)

李梴은 『醫學入門』에서 “낮고 습한 곳에 오래도록 거처하거나 비와 이슬이 침입하여 濕氣가 허리에 부착된 것이다. 허리가 돌처럼 무겁고 얼음처럼 차가워 뜨거운 물건으로 다림질하기를 좋아하고 갈증이 나지 않고 대변이 잘 나오고 음식은 전과 같다. 腎著湯에 附子를 더한다. 停水로 인해 沈重하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는 五苓散, 滲濕湯을 사용한다. 허리가 무겁고 아프면 單角茴散을 사용한다. 오래도록 낮지 않으면 牛膝을 술에 담가서 복용한다. 靑娥丸에 萆薢를 더한 것이 가장 좋다.”⁴⁷⁾고 하였다.

李梴은 濕腰痛의 원인에 대해 楊士瀛의 학설을 따랐고⁴⁸⁾, 症狀과 處方 중 腎著湯에 대해서 『金匱要略』의 腎著病을 인용하였다.⁴⁹⁾

濕腰痛의 處方 중 滲濕湯은 朱丹溪가 濕腰痛에 처음 사용하였다.⁵⁰⁾ 『傷寒論』에 수록된 五苓散과 『三因極一病證方論』에서 사용된 牛膝酒⁵¹⁾는 李梴이

藥出版社. 2006. p.73. “大抵腰痛之脈, 脈皆沈弦. 沈弦而緊者, 寒腰痛.”

37) 陳無擇. 陳無擇醫學全書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156-158. “五積散, 治感寒濕與脾胃蔽腰痛, 最效.(方見傷寒太陰經, 加桃仁煎.)

38) 朱震亨. 朱丹溪醫書集成·丹溪心法.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83. “若寒濕腰痛, 見熱則減, 見寒則增, 宜五積散加吳茱萸半錢, 杜仲一錢.”

39) 危亦林. 世醫得效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12”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p.124-126.

40) 李杲. 李東垣醫書集成·內外傷辨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3.

41) 朱震亨. 朱丹溪醫書集成·丹溪心法.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83.

42)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91. p.223. “治腰痛. 屈伸導法 正東坐 收手抱心 一人前躡其兩膝一人後捧其頭 徐牽令側臥 三倒三起久久效.”

43) 李梴 編著. 陳柱杓 解釋. (신대역)편자의학입문.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229.

44) 허준 著. 동의문헌연구실 譯. 신증보대역 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2012. p.786. “寒傷腎經腰痛, 不能轉側, 見熱則減, 遇寒則發, 脈沈弦急. 五積散加吳茱萸杜仲·桃仁. 痛甚, 加黑丑頭末一錢, 調服.(入門) ○痛甚, 服加味龍虎散.(入門) ○代灸膏, 貼腰眼穴.”

45) 朱震亨. 朱丹溪醫書集成·丹溪心法.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83. “若寒濕腰痛, 見熱則減, 見寒則增, 宜五積散加吳茱萸半錢, 杜仲一錢.”

46)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982.

47)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p.1514-1515. “【濕痛重者 熱煩躁】久處卑濕, 雨露侵淫, 爲濕所著. 腰重如石, 冷如冰, 喜熱物熨, 不渴便利, 飲食如故, 腎著湯, 加附子. 停水, 沈重, 小便不利, 五苓散, 滲濕湯. 腰痛, 單角茴散. 久不已, 單牛膝, 浸酒服. 靑娥丸, 加萆薢, 最妙.”

48) 楊士瀛. 仁齋直指(“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12”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p.353-356. “受濕者, 踐雨臥濕, 重者腫滯之萌藥也.”

49) 張仲景 著. 成無己 註. 金匱要略方論(“仲景全書”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390. “腎著之病, 其人身體重, 腰中冷, 如坐水中, 形如水狀, 反不渴, 小便自利, 飲食如故, 病屬下焦. 身勞汗出, 衣裏冷濕, 久久得之. 腰以下冷痛, 腰重如帶五千錢, 甘薑苓朮湯主之.”

50) 朱震亨. 朱丹溪醫書集成·丹溪心法.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83. “緩者爲濕 …… 若濕腰痛, 如坐水中, 或爲風濕雨露所着, 濕流入腎經, 以致腰痛, 宜滲濕湯, 不效, 宜腎著湯.”

濕腰痛에 처음으로 응용하였다. 靑娥丸은 본래 宋代 『太平惠民和劑局方』에서 腎虛에 風冷이 침입한 腰痛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였는데⁵²⁾ 李梴은 萹薹를 더하여 濕腰痛에 처음 응용하였다. 單角茴散은 李梴이 濕腰痛에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다.

許浚은 『東醫寶鑑』에서 “지대가 낮고 습한 곳에서 오랫동안 지내거나 비와 이슬을 맞아서 허리에 돌을 매달아 놓은 것처럼 무겁고 아프며, 얼음처럼 차가운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五積散에 桃仁·吳茱萸를 더하여 쓰면 가장 좋다. (『世醫得效方』) ○濕腰痛에는 朮附湯·通經散이 마땅하다. ○川芎肉桂湯은 차고 습한 곳에서 노숙하여 허리가 아파서 몸을 돌릴 수 없는 것을 치료한다. (『古今醫鑑』)”⁵³⁾ 라고 하였다.

許浚이 『東醫寶鑑』에서 제시한 濕腰痛의 原因, 症狀은 대체로 『醫學入門』과 일치하나, 處方은 『醫學入門』에서 전혀 인용하지 않고, 『醫學正傳』 등에서 五積散 加味, 朮附湯·通經散, 川芎肉桂湯을 인용하였다.

3. 熱腰痛(또는 濕熱腰痛)

李梴은 『醫學入門』에서 “【熱煩躁】濕邪에 熱을 겸한 경우이니 長夏에 暑와 濕이 서로 부딪쳐서 생긴다. 또는 기름진 음식으로 濕熱을 이룬 경우도 또한 같다. 實한 경우는 二炒蒼朮散에 柴胡, 防風을 더하여 달여서 복용한다. 虛한 경우는 七味蒼朮散을 사용한다. 소변이 붉은 경우는 五苓散, 清燥湯, 健步丸을 사용한다. 앞의 여러 약들이 효과가 나지 않을 경우는 甘遂, 牽牛를 사용하여 濕邪를 크게 瀉하고 나면 그치니 濕熱이 심하기 때문이다. 古方으로는 甘遂 분말 三錢을 豬腰子에 넣어서 재에 묻어 익힌

것을 빈속에 술에 다서 복용한다.”⁵⁴⁾라고 하였다.

李梴은 熱腰痛(濕熱腰痛)의 원인에 대해 朱丹溪의 ‘濕熱相搏’說을 발전시켜 長夏에 暑濕相搏이라고 하고, 樓英의 ‘膏粱厚味’說을 합하여 두 가지 모두가 그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지적하였다.⁵⁵⁾ 그러나 熱腰痛(또는 濕熱腰痛)의 症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못하였고, 후에 李中梓⁵⁶⁾, 秦景明⁵⁷⁾ 등이 煩熱, 自汗, 渴症, 소변이 붉고, 대변이 잘 나오지 않는 등의 구체적인 症狀를 제시하였다.

李梴은 二炒蒼朮散에 柴胡, 防風을 더한 것과 七味蒼朮散을 직접 만들어 濕熱腰痛과 뒤쪽의 食積腰痛에 처음 사용하였다. 또한 『傷寒論』에 수록된 五苓散을 처음으로 濕熱腰痛에 응용하였다. 清燥湯은 『脾胃論』에서 ‘濕熱成痿’를 치료하는 處方으로 허리 이하가 마르고 힘이 없는 것을 치료하던 것⁵⁸⁾을 李梴이 처음으로 濕熱腰痛과 食積腰痛에 응용하였다. 健步丸은 『蘭室秘藏·自汗門』에서 風濕이 下焦에 침입하여 허리, 등, 다리, 무릎 등이 무거운 것을 치료하던 것⁵⁹⁾을 李梴이 처음으로 濕熱腰痛에 응용하였다. 甘遂, 牽牛子는 李梴이 처음으로 濕熱腰痛에 사

51) 陳無擇. 陳無擇醫學全書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156-157.

52) 陳師文 등. 太平惠民和劑局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9』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75.

53) 허준 저. 동의문헌연구실 譯. 신증보대역 동의보감. 서울. 범인문화사. 2012. pp.782-790. “久處卑濕, 雨露浸淫, 腰重痛如石, 冷如水. 五積散加桃仁·吳茱萸, 最效.(得效). ○濕腰痛, 宜朮附湯通經散. ○川芎肉桂湯, 方見上. 治露宿寒濕之地, 腰痛不能轉側.(醫鑑)”

54)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p.1514-1515. “【濕痛重者 熱煩躁】…… 濕兼熱者, 長夏, 暑濕相搏, 或因膏粱, 成濕熱者, 亦同. 實者, 二炒蒼朮散, 加柴胡, 防風, 煎服. 虛者, 七味蒼朮散, 溺赤者, 五苓散, 清燥湯, 健步丸. 有諸藥不効者, 用甘遂, 牽牛, 大瀉其濕而止, 乃濕熱甚也. 古方, 有以甘遂末三錢, 和豬腰子, 煨熟空心, 酒下.”

55) 朱震亨. 朱丹溪醫書集成·脈因證治.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499. “【脈】尺脈粗常熱, 謂之熱中. …… 【因】…… 濕熱, 亦因腎虛而生焉. 腎者, 水也. 氣不利而成濕熱者, 因腎水涸, 相火熾, 無所榮制, 故濕熱相搏而成痛. …… 【證】…… 濕熱者, 四肢緩, 足寒逆, 腰冷如冰, 冷汗, 精滑, 扇痛. …… 【治】羌活湯治腰痛. …… 如濕熱痛, 加黃柏, 蒼朮, 杜仲, 川芎.”

56) 李中梓. 李中梓醫學全書·醫宗必讀.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33. “【熱】脈洪數, 發渴便秘, 甘豆湯加續斷, 天麻.”

57) 秦景明. 症因脈治. 中國. 旋風出版社. 발행년도 미상. pp.133-145. “【濕熱腰痛之症】內熱煩熱, 自汗口渴, 二便赤澀, 酸痛沈重, 此濕熱腰痛之症.”

58) 李杲. 李東垣醫書集成·脾胃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64. “腰以下痿軟, 癱瘓不能動, 行走不正, 兩足軟側, 以清燥湯主之.”

59) 李杲. 李東垣醫書集成·蘭室秘藏.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31. “治膝中無力, 伸而不得屈, 屈而不能伸, 腰背腿膝沈重, 行步艱難.”

용하였다. 甘遂 분말을 豬腰子에 넣어서 재에 묻어 익힌 것은, 朱丹溪가 腎虛腰痛에 大茴香 분말을 豬腰子에 넣어 재에 묻어 익혀 사용한 것⁶⁰⁾을 濕熱腰痛에 처음으로 응용한 것이다.

許浚은 『東醫寶鑑』에서 “평소에 膏粱珍味를 탐하던 사람이 腰痛을 앓는 것은 다 濕熱이나 陰虛로 인한 것이다.(『醫學綱目』)○濕熱腰痛은 날씨가 흐리거나 오랫동안 앉아 있을 때 발작하는 것이다.(『丹溪心法』)○脈이緩하거나 沈한 것은 濕腰痛이다.(『丹溪心法』)○濕熱腰痛일 경우 實證은 二妙蒼栢散을 쓰고, 虛한 경우 七味蒼栢散이나 當歸拈痛湯을 쓴다. 만약 여러 약이 효과가 나지 않으면 三花神祐丸 또는 櫻腎散으로 攻下한다.(『醫學入門』)”⁶¹⁾라고 하였다.

許浚이 『東醫寶鑑』에서 제시한 濕熱腰痛의 原因은 대체로 『醫學入門』과 일치하며, 그 증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점까지 『醫學入門』과 동일하다. 특히 許浚이 七味蒼栢散과 二妙蒼栢散을 각각 虛와 實로 구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은 『醫學入門』을 단순히 인용하지 않고 더욱 발전시킨 것이다. 또한 『醫學入門·腰痛』에서 甘遂, 牽牛子로 瀉한다는 내용을, 許浚은 大戟, 芫花, 甘遂로 이루어진 三花神祐丸로 攻下한다는 내용으로 바꾸어 인용하였다.

4. 風腰痛(風熱腰痛, 風虛腰痛, 風(寒)濕腰痛으로 細分)

李梴은 『醫學入門』에서 “風邪가 腎을 傷하면 腰痛이 생기는데 左右에 일정하지 않고 다리와 무릎까지 당기고, 뻣뻣하고 급하여 몸을 구부리거나 펴거나 돌아볼 수 없다. 風熱에는 敗毒散에 杜仲을 더한다. 二便이 막힌 경우는 甘豆湯에 續斷, 天麻

를 더한다. 風虛에는 小續命湯에 桃仁을 더하거나 혹 烏藥順氣散에 五加皮를 더한다. 風邪에 寒濕을 낀 경우는 五積交加散을 全蠍과 볶아서 全蠍을 빼고 쓴다. 獨活寄生湯, 羌活勝濕湯, 加味龍虎散 또는 威靈仙을 가루 내어 술에 타서 服用한다.”⁶²⁾라고 하였다.

李梴은 風腰痛의 原因에 대해 ‘風傷腎’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濟生方』의 獨活寄生湯의 主治⁶³⁾에서 기인한 것이다. 風腰痛의 症狀은 대체로 『證治要訣』의 설명⁶⁴⁾을 따랐다.

李梴은 風腰痛의 處方에 대해 風熱, 風虛, 風濕의 3가지로 더욱 細分하여 수록하였는데, 이러한 분류는 『醫學入門』의 독특한 방식이다.

風熱腰痛의 處方으로 敗毒散加杜仲을 사용한 것은 『世醫得效方』의 敗毒散에서 응용한 것이고,⁶⁵⁾ 甘豆湯加續斷, 天麻는 楊士瀛이 風熱腰痛에 응용하였는데,⁶⁶⁾ 李梴이 그것을 인용한 것이다.

風虛腰痛에 小續命湯加桃仁을 사용한 것은 본래 『備急千金要方』에서 中風으로 발생한 諸般 症狀을 치료하는 小續命湯⁶⁷⁾을 陳無擇이 風腰痛에 처음 응용하였고, 李梴이 다시 인용한 것이다. 烏藥順氣散加五加皮는 본래 『普濟方』에서 風濕으로 인한 통증을 치료하는 烏藥順氣散⁶⁸⁾을 李梴이 처음으로 風虛

60) 朱震亨. 朱丹溪醫書集成·丹溪心法.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83.

61) 허준. 동의문헌연구실. 신증보대역 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2012. pp.782-790. “平日, 膏粱厚味之人, 腰痛皆是濕熱陰虛. 『綱目』○濕熱腰痛者, 遇天陰或久坐而發者, 是也. 『丹心』○脈緩或沈, 是濕腰痛. 『丹心』○濕熱腰痛, 實者, 二妙蒼栢散(方見足部), 虛者, 七味蒼栢散, 或當歸拈痛湯(方見足部). 如諸藥不效, 用三花神祐丸(方見下門), 或櫻腎散, 下之. 『入門』”

62)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515. “【風牽脚膝 強難舒】風傷腎, 腰痛, 左右無常, 牽連脚膝, 強急, 不可俛仰以顧. 風熱, 敗毒散, 加杜仲. 二便閉者, 甘豆湯, 加續斷, 天麻. 風虛, 小續命湯, 加桃仁, 或烏藥順氣散, 加五加皮. 風挾寒濕者, 五積交加散, 用全蠍, 炒過, 去蠍. 獨活寄生湯, 羌活勝濕湯, 加味龍虎散, 或單威靈仙, 爲末, 酒調服.”

63) 嚴用和. 嚴用和醫學全書重輯嚴氏濟生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73. “獨活寄生湯, 治風傷腎經, 腰痛如掣, 久而不治, 流入脚膝, 爲偏枯冷痺緩弱之患.”

64) 戴元禮. 秘傳證治要訣及類方.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89. pp.88-89. “若風濕而腰痛者, 或左或右, 痛無常處, 牽引兩足.”

65) 危亦林. 世醫得效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12』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p.124-126.

66) 楊士瀛. 仁齋直指(『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12』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p.353-356. “甘豆湯, 治內蓄風熱入腎腰痛, 大小便不通, 加續斷, 天麻, 間服敗毒散.”

67) 孫思邈. 備急千金要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3』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273.

68) 朱棣. 普濟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18』中). 서울.

腰痛에 응용한 것이다.

風濕腰痛에 五積散과 人蔘敗毒散을 합한 것을 五積交加散이라고 하는데, 五積交加散加全蠍은 『壽世保元』에서 風濕으로 생긴 婦人의 月經不調에 사용된 五積交加散⁶⁹⁾을 李梴이 처음으로 風濕腰痛에 응용하였다.

風腰痛의 通用方으로 李梴은 獨活寄生湯, 羌活勝濕湯, 加味龍虎散을 제시하였다. 獨活寄生湯은 『濟生方·腰痛』에서 기인한 것이고,⁷⁰⁾ 羌活勝濕湯은 『古今醫鑑』에서 風濕相搏으로 온 몸이 다 아플 때 사용한 것⁷¹⁾으로 李梴은 風腰痛에 처음으로 응용하였다. 加味龍虎散은 許浚은 『世醫得效方』에서 인용한 處方이라고⁷²⁾ 했지만 실제로는 『世醫得效方』에서 찾을 수 없었다. 李梴은 이 處方을 風腰痛과 食積腰痛에 사용하였다. 威靈仙 분말은 李梴이 처음으로 風腰痛에 사용하였다.

許浚은 『東醫寶鑑』에서 “風邪가 腎을 손상시켜 생긴 腰痛은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통증이 정해진 곳이 없이 나타나며 두 다리가 땅기면서 뻣뻣하다. 이때는 五積散에 防風·全蠍을 더하여 쓰거나, 烏藥順氣散에 五加皮를 더하여 쓴다. 통증이 심한 경우는 加味龍虎散을 쓴다. (『醫學入門』) ○風熱腰痛에는 敗毒散에 續斷·天麻·木瓜·薄荷를 더하여 쓴다. (『世醫得效方』)”⁷³⁾ 고 하였다.

許浚이 『東醫寶鑑』에서 제시한 風腰痛의 原因, 症狀, 處方은 대체로 『醫學入門』을 인용하였다. 다만 『世醫得效方』의 敗毒散에 李梴은 杜仲을 더하여

사용하였지만, 許浚은 續斷·天麻·木瓜·薄荷를 더하여 사용한 것이 다르다. 또한 李梴은 五積交加散에 全蠍을 더하여 사용한 것과 달리, 許浚은 五積散에 防風·全蠍을 더하여 사용하였다.

5. 失志腰痛(鬱怒傷肝, 憂思傷脾)

李梴은 『醫學入門』에서 “失志는 心血이 왕성하지 못하여 능히 筋脈을 調攝하여 기르지 못한 것이니, 허리 사이가 찌뿌둥하고 부푼 듯이 허리를 펴지 못하고, 허약하고 마르며 얼굴이 검고 능히 오래토록 서있거나 먼 곳을 다니지 못한다. 七氣湯에 茯苓을 배로 하고 沈香, 乳香을 조금 더 넣는다. 虛한 경우는 心腎을 모두 補하니 人參養榮湯에 杜沖, 牛膝을 더한다.”⁷⁴⁾라고 하였다. 또한 “五臟은 다 五穀에서 기운을 取한다. 脾는 腎의 창고이다. 근심하거나 생각을 많이 하여 脾를 상하면 胃氣가 운행하지 않아서 腰痛이 생긴다. 배와 옆구리까지 이어져서 부푼고 그득하며 근육이 마비되어 감각이 떨어진다. 沈香降氣湯, 木香勻氣散을 사용한다. 飲食을 소화하기 어려운 경우는 異香散을 사용한다. ○宗筋은 陰器에서 모인다. 肝은 腎과 같은 계통이다. 성을 내어 肝을 상하면 모든 근육이 늘어지고 腰痛이 옆구리까지 이어진다. 聚香飲子, 調肝散을 사용한다. ○七情의 원인에 外感이 끼어 表證이 있는 경우는 人參順氣散, 烏藥順氣散을 사용하거나 瘦胎枳甘散에 蔥白을 더한다. 七香丸, 青木香丸, 立安丸을 通用한다.”⁷⁵⁾라고 하였다.

李梴은 失志腰痛의 原因에 대해 失志로 心, 腎을 상한 것과 憂思傷脾, 鬱怒傷肝을 제시하였는데, 이

大星文化社. 1995. p.122.

69) 龔廷賢. 龔廷賢醫學全書壽世保元.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06.

70) 嚴用和. 嚴用和醫學全書重輯嚴氏濟生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73.

71) 龔廷賢. 龔廷賢醫學全書古今醫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191.

72) 허준 著. 동의문헌연구실 譯. 신증보대역 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2012. pp.782-790.

73) 허준 著. 동의문헌연구실 譯. 신증보대역 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2012. pp.782-790. “風傷腎而腰痛者, 或左或右, 痛無常所, 引兩足強急. 五積散. 方見寒門, 加防風·全蠍. 或烏藥順氣散, 方見風門, 加五加皮. 痛勢甚者, 加味龍虎散.(入門) ○風熱腰痛, 敗毒散, 方見寒門, 加續斷·天麻·木瓜·薄荷.(得效)”

74)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515. “【內傷失志 腰膨脹】失志, 則心血不旺, 不能攝養筋脈, 腰間鬱鬱, 膨脹不伸, 令人虛羸面黑, 不能久立遠行. 七氣湯, 倍茯苓, 加沈香, 乳香少許. 虛者, 當心腎俱補, 人參養榮湯, 加杜沖, 牛膝.”

75)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515. “【憂怒 腹脇 痛相須】五臟, 皆取氣於穀. 脾者, 腎之倉廩也. 憂思傷脾, 則胃氣不行, 腰痛, 連腹脇脹滿, 肉痺不仁. 沈香降氣湯, 木香勻氣散. 飲食難化者, 異香散. ○宗筋, 聚於陰器, 肝者, 腎之同系也. 怒傷肝, 則諸筋縱弛, 腰痛連脇, 聚香飲子, 調肝散. ○七情, 挾外感, 有表者, 人參順氣散, 烏藥順氣散, 枳甘散, 加蔥白. 通用七香丸, 青木香丸, 立安丸.”

는 대체로 陳無擇의 학설을 따른 것이다.⁷⁶⁾ 다만 陳無擇은 失志로 腎을 傷한다고 하였으나, 李梴은 失志로 心을 먼저 傷하고 결국 腎을 함께 상한다는 관점으로 기술한 점이 다르다.

失志腰痛 중 ‘失志傷心’의 症狀에 대해서는 『脈因證治』의 설명⁷⁷⁾을 따랐고, ‘憂思傷脾’와 ‘鬱怒傷肝’의 症狀에 대해서는 『仁齋直指』의 “鬱怒가 肝을 상하면 모든 筋이 늘어지고, 憂思가 脾를 상하면 胃氣가 운행하지 않는다.”⁷⁸⁾와 『脈因證治』의 “鬱怒한 경우는 배가 급하고 옆구리가 부은 듯하고 눈앞이 어둡고 가능하지 않은 것을 바라고 마음이 뜻밖의 일로 들뜬다. 憂思한 경우는 肌肉이 적신 듯하고 마비가 되어 감각이 떨어지고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腸과 胃가 붓고 그득하다.”⁷⁹⁾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失志腰痛의 處方 중 七氣湯加味는 『仁齋直指』에서 失志腰痛을 치료하는 處方으로 사용하였는데,⁸⁰⁾ 李梴이 失志腰痛 중 ‘失志傷心’에 응용한 것이다. 人參養榮湯加杜沖, 牛膝은 본래 『三因極一病方證論』에서 心脾의 虛損을 치료한 養榮湯에⁸¹⁾ 李梴이 杜沖,

牛膝을 더하여 失志腰痛 중 ‘失志傷心’에 처음 사용하였다.

沈香降氣湯은 『仁齋直指』에서 憂鬱傷脾로 인한腰痛을 치료하는 處方으로 사용하였는데,⁸²⁾ 李梴이 失志腰痛 중 ‘憂鬱傷脾’에 응용한 것이다. 木香勻氣散은 『太平惠民和劑局方』에서 氣滯로 인한 心腹刺痛을 치료하는 勻氣散⁸³⁾ 또는 『丹溪心法』에서 脾胃氣滯로 발생한 脹滿을 치료하는 勻氣散을⁸⁴⁾ 李梴이 처음으로 失志腰痛 중 ‘憂鬱傷脾’에 응용한 것이다. 異香散은 『太平惠民和劑局方』에서 脾胃氣滯로 脹滿을 치료하는 異香散을⁸⁵⁾ 李梴이 처음으로 失志腰痛 중 ‘憂鬱傷脾’에 응용한 것이다.

聚香飲子是 『濟生方·諸疝門』에서 七情으로 인해 통증이 허리, 옆구리까지 당기고, 등까지 이어진 것을 치료하였는데⁸⁶⁾ 李梴이 失志腰痛 중 ‘鬱怒傷肝’에 응용하였다. 調肝散은 『仁齋直指·腰痛』에서 사용한 것을 李梴이 失志腰痛 중 ‘鬱怒傷肝’에 응용한 것이다.⁸⁷⁾

人參順氣散은 『世醫得效方』에서 氣滯腰痛에 人參順氣散에 五加皮를 더하여 사용한 것을⁸⁸⁾ 李梴이 內傷과 外感이 겸한 腰痛의 치료에 응용한 것이다. 烏藥順氣散은 『太平惠民和劑局方』에서 양쪽 옆구리

76) 陳無擇. 陳無擇醫學全書三因極一病方證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156-157. “失志傷腎, 鬱怒傷肝, 憂思傷脾, 皆致腰痛者, 以肝腎同系, 脾胃表裏, 脾滯胃閉, 最致腰痛. 其證虛羸不足, 面目黧黑, 遠行久立, 力不能盡, 失志所爲也.”

77) 朱震亨. 朱丹溪醫書集成·脈因證治.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83. “【證】失志者虛, 云不足. 面黑, 遠行久立不能住. 鬱怒者, 腹急脅脹, 目視眩暈, 所祈不能, 意浮於外. 憂思者, 肌肉濡潰, 瘳而不仁, 飲食不化, 腸胃脹滿.”

78) 楊士瀛. 仁齋直指(『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12』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p.355-356. “鬱怒傷肝, 發爲腰痛. …… 憂思傷脾, 發爲腰痛.”

79) 朱震亨. 朱丹溪醫書集成·脈因證治.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83. “鬱怒者, 腹急脅脹, 目視眩暈, 所祈不能, 意浮於外. 憂思者, 肌肉濡潰, 瘳而不仁, 飲食不化, 腸胃脹滿.”

80) 楊士瀛. 仁齋直指(『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12』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p.355-356. “和劑七氣湯, 治失志傷腎, 氣剝腰痛, 多加白茯苓, 少加沈香, 乳香.”

81) 陳無擇. 陳無擇醫學全書三因極一病方證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60. “治積勞虛損, 四肢沉滯, 骨肉酸疼, 吸吸少氣, 行動喘咳, 小便拘急, 腰背強痛, 心虛驚悸, 咽乾唇燥, 飲食無味, 陰陽衰弱, 悲憂慘戚, 多臥少起, 久者積年, 急者百日, 漸至瘦削, 五臟氣竭, 難可振復. 又治肺與大腸俱虛, 咳嗽下利, 喘乏少氣, 嘔吐痰涎.”

82) 楊士瀛. 仁齋直指(『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12』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p.355-356. “沈香降氣湯, 和調氣散, 每服二錢半, 薑棗煎, 治憂思傷脾, 發爲腰痛.”

83) 陳師文 등. 太平惠民和劑局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9』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25. “勻氣散, 治氣滯不勻, 胸膈虛痞, 宿食不消, 心腹刺痛, 除脹滿噎塞, 止嘔吐惡心, 常服調順脾胃, 進美飲食.”

84) 朱震亨. 朱丹溪醫書集成·丹溪心法.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93. “勻氣散, 治氣滯不勻, 胸膈虛痞, 宿食不消, 心腹刺痛, 脹滿噎塞, 嘔吐惡心, 調脾胃, 進飲食.”

85) 陳師文 등. 太平惠民和劑局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9』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5. “異香散, 治腎氣不和, 腹脇膨脹, 痞悶噎塞, 喘滿不快, 飲食難化, 噎氣吞酸, 一切氣痞, 腹中刺痛.”

86) 嚴用和. 嚴用和醫學全書重輯嚴氏濟生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57. “聚香飲子, 治七情所傷, 遂成七疝, 心腹脹痛, 痛引腰脇連背, 不可俯仰.”

87) 楊士瀛. 仁齋直指(『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12』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p.355-356. “調肝散, 治鬱怒傷肝, 發爲腰痛.”

88) 危亦林. 世醫得效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12』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125. “人參順氣散, 治氣滯腰痛, 加五加皮煎服, 或用木香流氣散, 立效.”

가 아프고 心腹이 팽창한 것을 치료하는데 사용하였는데⁸⁹⁾ 李梴이 內傷과 外感이 겸한 腰痛의 치료에 응용한 것이다. 瘦胎枳甘散 加蔥白은 『太平惠民和劑局方』에서 胎兒가 잘 나오게 하는 滑胎枳殼散⁹⁰⁾을 李梴이 內傷과 外感이 겸한 腰痛의 치료에 응용한 것이다.

失志腰痛의 通用方으로 李梴은 七香丸, 青木香丸, 立安丸을 제시하였다.

七香丸은 『世醫得效方』에서 鬱怒憂思로 인한 氣滯腰痛을 치료하는 小七香圓⁹¹⁾을 李梴이 인용한 것이고, 青木香丸은 『太平惠民和劑局方』에서 胸膈噎塞, 腹脅脹痛, 心下堅痞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였는데⁹²⁾ 李梴이 응용한 것이고, 立安丸은 『三因極一病方證論』에서 5가지 腰痛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였는데⁹³⁾ 李梴이 응용한 것이다.

許浚은 『東醫寶鑑』에서 “대체로 사람이 마음먹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心血이 왕성하지 못하여 筋脈을 滋養하지 못하며, 氣가 막혀서 腰痛이 생기므로 오랫동안 서 있거나 멀리 걷지를 못하게 된다. 이때는 七氣湯에 茯苓을 배로 넣고 沈香·乳香을 각각 조금씩 넣어 달여 복용한다.(『醫學入門』) ○지나친 근심과 생각으로 脾를 손상시키면 허리가 아프게 되고, 지나친 분노로 肝을 손상시켜도 허리가 아프게 되는데, 모두 沈香降氣湯에 調氣散을 합한 데다가 生薑 3쪽, 대추 2알을 넣어 달여 먹는다.(『仁齋直指』)”⁹⁴⁾라고

89) 陳師文 등. 太平惠民和劑局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9』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498. “烏藥順氣散, 治男子婦人, 一切風氣攻注四肢, …… 兩脇刺痛, 心腹脹脹, 吐瀉腸鳴.”

90) 陳師文 등. 太平惠民和劑局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9』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664. “滑胎枳殼散, 治婦人胎氣不足, 能令胎滑易產, 常服養胎益氣, 安和子藏, 治胎中一切惡疾.”

91) 危亦林. 世醫得效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12』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125. “小七香圓, 治鬱怒憂思, 氣滯腰疼.”

92) 陳師文 등. 太平惠民和劑局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9』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30. “青木香丸, 寬中利膈, 行滯氣, 消飲食, 治胸膈噎塞, 腹脇脹滿, 心下堅痞, 腸中水聲, 嘔噦痰逆, 不思飲食.”

93) 陳無擇. 陳無擇醫學全書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58. “立安丸, 治五種腰痛, 常服補腎, 強腰脚, 治脚氣.”

하였다.

許浚은 『東醫寶鑑』에서 氣腰痛의 原因, 症狀, 處方에 대해 대체로 『醫學入門』을 인용하였다. 調氣散은 『丹溪心法』에서 厥症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였는데⁹⁵⁾ 許浚이 氣腰痛에 응용한 것으로, 『醫學入門』의 調肝散과는 다른 처방이다.

6. 痰腰痛

李梴은 『醫學入門』에서 “濕痰이 經絡으로 흘러들어가서 등과 옆구리가 아프고 脈이 滑한 경우는 二陳湯에 南星, 蒼朮, 黃柏을 더한다. 風痰에는 麻黃, 防風, 羌活을 더한다. 寒痰에는 生薑, 肉桂, 附子를 더하거나 控涎丹을 사용한다. 大便이 泄하는 경우는 龜糲丸을 사용한다.”⁹⁶⁾라고 하였다.

李梴은 痰腰痛의 原因에 대해 虞搏의 說明을 인용하였고,⁹⁷⁾ 痰腰痛의 症狀에 대해 『萬病回春』의 설명을 인용하였다.⁹⁸⁾

痰腰痛의 處方 중 二陳湯은 본래 『太平惠民和劑局方』에서 痰飲을 치료하는 處方으로 사용하였고⁹⁹⁾, 朱丹溪가 風, 寒 등 여러 종류의 痰病에 加味하여 응용하였고¹⁰⁰⁾, 虞搏도 朱丹溪를 따라 加味하였는

94) 허준 著. 동의문헌연구실 譯. 신증보대역 동의보감. 서울. 법민문화사. 2012. pp.782-790. “凡人失志, 則心血不旺, 不養筋脈, 氣滯腰痛, 不能久立遠行. 七氣湯, 方見氣門, 倍加茯苓, 加沈香乳香各少許, 煎服.(入門) ○憂思傷脾, 則腰痛, 忿怒傷肝, 亦作腰痛. 俱宜沈香降氣湯, 方見氣門, 合調氣散, 入薑三片, 棗二枚, 煎服.(直指)”

95) 朱震亨. 朱丹溪醫書集成·丹溪心法.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66.

96)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p.1515-1516. “【痰運背脇 積難仰】濕痰, 流注經絡, 背脇疼痛, 脈滑者, 二陳湯, 加南星, 蒼朮, 黃柏. 風加麻黃, 防風, 羌活. 寒加薑, 桂, 附子. 控涎丹. 大便泄者, 龜糲丸.”

97) 虞搏. 醫學正傳. 서울. 성보사. 1986. p.191. “滑者伏者是痰, 大者是腎虛也.”

98) 龔廷賢. 龔廷賢醫學全書萬病回春.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68. “【脈】…… 滑痰火煎, 或引背痛, 沈滑等症.”

99) 陳師文 등. 太平惠民和劑局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9』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57. “二陳湯, 治痰飲爲患, 或嘔吐惡心, 或頭眩心悸, 或中脘不快, 或發爲寒熱, 或因食生冷, 脾胃不和.”

100) 朱震亨. 朱丹溪醫書集成·丹溪心法.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데, 李梴이 이를 痰腰痛에 응용한 것이다. 控涎丹은 『三因極一病證方論』에서 痰涎이 心膈에 잠복하여 발생한 胸背, 手脚, 腰膀 등의 痛症을 치료하는 處方인데¹⁰¹⁾ 李梴이 痰腰痛에 응용한 것이다. 龜枵丸은 『丹溪心法』에서 龜板, 枵白皮 등을 濕痰腰痛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였는데¹⁰²⁾ 李梴이 이를 龜枵丸이라고 처음 命名하고 痰腰痛에 응용한 것이다.

許浚은 『東醫寶鑑』에서 “脈이 滑하거나 伏한 것은 痰飲으로 인한 腰痛이다.(『丹溪心法』)○痰飲이 經絡으로 돌아다녀서 허리와 등이 쑤시고 아픈 경우에는 二陳湯이나 芎夏湯(둘 다 痰飲門에 있다.)에 南星·蒼朮·黃柏을 더하여 쓰거나 控涎丹을 쓴다.○痰飲腰痛에는 마땅히 南星·半夏에 氣가 잘 들게 하는 藥을 佐藥으로 더하여 쓴다.(『丹溪心法』)”¹⁰³⁾고 하였다.

許浚은 痰腰痛의 脈象에 대해 『丹溪心法』에서 인용하였고, 痰腰痛의 原因, 症狀, 處方은 대체로 『醫學入門』을 인용하였다. 특히 ‘南星·半夏, 加快氣藥佐之.’의 내용은 『丹溪心法』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라, 『醫學正傳』에서 인용한 것이다.

7. 食積腰痛

李梴은 『醫學入門』에서 “食積은 술에 취하거나 배가 부른 상태에서 入房함으로 인해 濕熱이 虛한 틈을 타서 腎에 들어가서 腰痛이 발생하여 구부리거

나 퍼기가 어렵다. 四物二陳湯에 麥芽, 神麩, 葛花, 砂仁, 杜仲, 黃柏, 官桂, 枳殼, 桔梗을 더한다. 통증이 심한 경우는 速效散을 사용한다. 積聚가 된 경우는 加味龍虎散을 사용한다. 濕熱이 된 경우는 七味蒼朮散, 清燥湯을 사용한다.”¹⁰⁴⁾라고 하였다.

李梴은 食積腰痛의 原因, 症狀, 處方(四物二陳湯合方)에 대해 『醫學正傳』에서 인용한 『丹溪活套』의 내용을 재인용하였다.¹⁰⁵⁾

食積腰痛의 處方 중 速效散은 『丹溪心法附餘』에 腰痛으로 참지 못하는 것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였는데¹⁰⁶⁾ 李梴이 食積腰痛에 처음으로 응용하였다. 加味龍虎散은 李梴이 風腰痛과 食積腰痛에 처음 사용하였다. 七味蒼朮散은 李梴이 직접 만들어 食積腰痛과 濕熱腰痛에 처음 사용하였다. 清燥湯은 『脾胃論』에서 濕熱成痿를 치료하는 處方으로 허리 이하가 마르고 힘이 없는 것을 치료하던 것¹⁰⁷⁾을 李梴이 처음으로 食積腰痛과 濕熱腰痛에 응용하였다.

許浚은 『東醫寶鑑』에서 “술에 취하거나 배불리 먹고 房事를 치러 濕熱이 허한 틈을 타고 腎에 들어가 생긴 腰痛으로 구부렸다가 폄다하기 어렵다. 四物湯에 二陳湯을 합한 것에 麥芽, 神麩, 葛花, 縮砂, 杜仲, 黃柏, 官桂, 枳殼, 桔梗을 더하여 달여 복용한다.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速效散을 쓴다.(『入門』)”¹⁰⁸⁾이라고 하였다.

社. 2006. p.112.

101) 陳無擇. 陳無擇醫學全書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154. “凡人忽患胸背, 手脚, 頸項, 腰膀急痛不可忍, 連筋骨, 牽引釣痛, 坐臥不寧, 時時走易不定, 俗醫不曉, 謂之走注, 便用風藥及針灸, 皆無益, 又疑是風毒結聚, 欲爲癰疽, 亂以藥貼, 亦非也. 此乃是痰涎伏在心膈上下, 變爲此疾.”

102) 朱震亨. 朱丹溪醫書集成丹溪心法.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82. “治濕痰腰痛, 大便秘, 龜板一兩 灸, 蒼朮, 枳皮, 滑石 半兩, 白芍藥 酒炒, 香附 各四錢. 上爲末, 糊丸. 如內傷, 白朮山楂湯下.”

103) 허준 著. 동의문헌연구실 譯. 신증보대역 동의보감. 서울. 범인문화사. 2012. pp.782-790. “脈滑者伏者, 是痰飲痛也.(丹心)○痰飲流注經絡, 腰背疼痛, 二陳湯, 或芎夏湯(並見痰飲), 加南星·蒼朮·黃柏, 或用控涎丹(方見痰飲)○痰飲腰痛, 宜南星·半夏, 加快氣藥佐之.(丹心)”

104)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516. “食積, 因醉飽入房, 濕熱, 乘虛入腎, 以致腰痛, 難以俛仰. 四物二陳湯, 加麥芽, 神麩, 葛花, 砂仁, 杜仲, 黃柏, 官桂, 枳, 梗, 痛甚者, 速效散. 積聚者, 加味龍虎散. 濕熱者, 七味蒼朮散, 清燥湯.”

105) 虞搏. 醫學正傳. 서울. 성보사. 1986. p.194. “【丹溪活套】……有因醉飽入房太甚, 而酒食之積, 乘虛流入于本經, 致腰痛難以俛仰, 四物湯合二陳湯加麥芽, 神麩, 杜仲, 黃柏, 官桂, 砂仁, 枳殼, 葛花, 桔梗.”

106) 朱震亨 著. 方廣 編註. 丹溪心法附餘.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598. “速效散, 治腰疼不可忍.”

107) 李杲. 李東垣醫書集成脾胃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64. “腰以下痿軟, 癱瘓不能動, 行走不正, 兩足軟側, 以清燥湯主之.”

108) 허준 著. 동의문헌연구실 譯. 신증보대역 동의보감. 서울. 범인문화사. 2012. pp.782-790. “因醉飽入房, 濕熱乘虛入腎, 腰痛難以俛仰. 四物湯(方見血門)合二陳湯(方見痰飲)加麥芽, 神麩, 葛花, 縮砂, 杜仲, 黃柏, 官桂, 枳殼, 桔梗, 煎服. 痛甚者, 宜速效散.(入門)”

許浚이 언급한 食積腰痛의 原因, 症狀, 處方은 모두 『醫學入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8. 閃挫腰痛(瘀血腰痛 포함)

李梴은 『醫學入門』에서 “閃倒腰痛은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血瘀腰痛이 발생한 것이니 낮에는 증상이 덜하고 밤에는 심해진다. 마땅히 行血順氣한다. 實한 경우는 桃仁承氣湯 또는 大黃, 生薑을 같은 분량으로 하여 하루를 물에 담갔다가 五鼓의 새벽에 복용한다. 오래된 경우는 補陰丸에 桃仁, 紅花를 더하거나 五積散에 麻黃을 빼고 茴香, 木香, 檳榔을 더한다. 열구리까지 이어져서 아픈 경우는 復元通聖散에 木香을 더한다.”¹⁰⁹⁾고 하였다.

李梴은 閃挫腰痛의 原因에 대해 『仁齋直指』에서 ‘떨어지거나 다치면 瘀血이 맺히고 되어 막힌다.’¹¹⁰⁾는 설명을 따랐다. 따라서 李梴은 閃挫腰痛과 瘀血腰痛을 구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雜病은 일반적으로 內科 질환을 가리키며, 閃挫腰痛은 外科의 원인에 해당하기에 李梴은 「雜病篇」에서 外科의 原因인 ‘閃挫’보다는 內科의 原因인 ‘瘀血’을 의도하여 분류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證治要訣』 이후의 여러 醫書와 『東醫寶鑑』에서는 閃挫腰痛과 瘀血腰痛을 서로 구분하고 있다.

李梴은 閃挫腰痛의 症狀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고, 『丹溪心法』에서 언급한 瘀血腰痛의 ‘日輕夜重’¹¹¹⁾의 특징으로 대신하였다.

閃挫腰痛의 處方 중에서 桃仁承氣湯은 본래 『醫學正傳』에서 大承氣湯에 肉桂를 더하여 사용했던 것을¹¹²⁾ 李梴이 處方을 약간 변화하여 閃挫腰痛으로

瘀血이 생긴 것을 치료하는 데 사용한 것이다. 補陰丸 加桃仁, 紅花는 『丹溪心法·補損』에서 瘀血腰痛을 치료하는 데에도 사용하였는데¹¹³⁾ 李梴이 閃挫腰痛으로 瘀血이 생긴 것을 치료하는 데 사용한 것이다. 五積散 去麻黃, 加茴香, 木香, 檳榔은 『丹溪心法·腰痛附錄』에서 閃挫腰痛에 사용한 五積散 加味를¹¹⁴⁾ 李梴이 별도로 加減하여 응용한 것이고, 復元通聖散, 加木香은 『丹溪心法·腰痛附錄』에서 閃挫腰痛에 사용하였는데¹¹⁵⁾ 李梴이 木香을 더하여 응용한 것이다. 大黃, 生薑 等分은 李梴이 閃挫腰痛을 치료하는 데 처음 사용하였다.

許浚은 『東醫寶鑑』에서 閃挫腰痛에 대해서 “무거운 것을 들거나 파로하여 상했거나 집질렸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생긴 통증인데, 이것을 개요통(腎腰痛)이라고 한다. 獨活湯, 乳香趁痛散, 如神湯, 舒筋散, 立安散, 神麴酒를 쓴다.”¹¹⁶⁾고 하였다.

許浚은 閃挫腰痛의 原因에 대해 ‘舉重勞傷’과 ‘挫閃墜落’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 ‘舉重勞傷’은 李梴이 분류한 ‘勞傷腰痛’의 原因에 해당한다. 즉 許浚은 『醫學入門』에서 분류한 勞傷腰痛과 挫閃腰痛을 모두 挫閃腰痛에 포함시켰다.

閃挫腰痛의 症狀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醫學入門』에서 그 증상을 언급하지 않은 점과 같다.

閃挫腰痛의 處方 중 獨活湯은 『東垣試效方』에서 勞役으로 인한 腰痛에 사용하였는데¹¹⁷⁾ 許浚이 閃

套】…… 因挫閃跌撲，致死血流于本經而作痛者，四物湯加桃仁，紅花，蘇木之類。脈實人壯盛者，大承氣湯加桂，下之安。”

113) 朱震亨. 朱丹溪醫書集成·丹溪心法.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83. “脈澀者瘀血，用補陰丸加桃仁，紅花。”

114) 朱震亨. 朱丹溪醫書集成·丹溪心法.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83. “閃挫腰痛，宜復元通氣散，酒調服，或五積散加牽牛頭末一錢，或桃仁七枚。”

115) 朱震亨. 朱丹溪醫書集成·丹溪心法.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83. “閃挫腰痛，宜復元通氣散，酒調服，或五積散加牽牛頭末一錢，或桃仁七枚。”

116) 허준 著. 동의문헌연구실 譯. 신증보대역 동의보감. 서울. 범인문화사. 2012. pp.782-790. “舉重勞傷，或挫閃墜落，以作痛，亦謂之腎腰痛。宜獨活湯，乳香趁痛散，如神湯，舒筋散，立安散，神麴酒。”

109)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516. “【閃倒 瘀逆夜偏呼】閃倒，跌撲墜墜，以致血瘀腰痛，日輕夜重。宜行血順氣。實者，桃仁承氣湯，或大黃，生薑，等分，水浸一宿，五鼓，服之。久者，補陰丸，加桃仁，紅花，或五積散，去麻黃，加茴香，木香，檳榔。連脇痛者，復元通聖散，加木香。”

110) 楊士瀛. 仁齋直指(『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12』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p.353-356. “墜墜損傷，則瘀血爲之凝結沮澀。”

111) 朱震亨. 朱丹溪醫書集成·丹溪心法.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83. “脈澀者瘀血，用補陰丸加桃仁，紅花。…… 瘀血者，日輕夜重者是也。”

112) 虞搏. 醫學正傳. 서울. 성보사. 1986. p.194. “【丹溪活

挫腰痛의 處方으로 인용하였다. 乳香趁痛散은 『蘭室秘藏』에서 閃挫腰痛을 치료하는 ‘趁痛散’¹¹⁸⁾을 許浚이 명칭을 고치고 閃挫腰痛의 處方으로 인용하였다. 如神湯은 『醫學綱目』에서 男子와 婦人의 腰痛에 사용하였는데¹¹⁹⁾ 許浚이 閃挫腰痛의 處方으로 인용하였다. 舒筋散은 『世醫得效方』에서 瘀血腰痛의 치료에 사용하였는데¹²⁰⁾ 許浚이 閃挫腰痛의 處方으로 인용하였다. 立安散은 立安丸은 『三因極一病方證論』에서 5가지 腰痛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였는데, 李梴은 失志腰痛의 通用方으로 제시하였고, 許浚은 閃挫腰痛의 處方으로 인용하였다. 神麴酒는 『世醫得效方』에서 閃挫腰痛의 處方으로 제시하였는데¹²¹⁾ 許浚이 인용하였다.

許浚은 瘀血腰痛에 대해서 “넘어졌거나 맞았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경우 피가 맺혀서 생긴 요통이다.(『醫學入門』)○낮에는 덜하고 밤에 더한 것은 瘀血腰痛이다.(『丹溪心法』)○피가 스며나와 맺히면 허리가 아픈데, 몸을 돌릴 때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仁齋直指』)○瘀血腰痛에는 破血散疼湯, 川芎肉桂湯, 地龍散을 사용한다. 實한 경우에 桃仁承氣湯을 쓰고, 오래된 경우에는 五積散에 麻黃을 빼고 桃仁, 紅花, 木香, 檳榔, 茴香(볶은 것)을 더하여 쓰거나 四物湯에 桃仁, 蘇木, 紅花(술로 씻은 것)를 더하여 쓴다.○허리에서 옆구리까지 아픈 경우에는 復元通氣散에 木香을 더하여 복용한다.(『醫學入門』)”¹²²⁾라고 하였다.

許浚은 瘀血腰痛의 原因에 대해 『醫學入門』의 閃挫腰痛의 原因을 인용하였다. 瘀血腰痛의 症狀에 대해서 『仁齋直指』의 “血滲, 則轉側如錐之所刺.”와 『丹溪心法』의 “瘀血者, 日輕夜重者是也.”를 인용하였다.

瘀血腰痛의 處方 중 破血散疼湯, 川芎肉桂湯, 地龍散은 『東垣試效方』에서 瘀血과 관련된 腰痛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였고,¹²³⁾ 桃仁承氣湯, 五積散加味, 復元通氣散加木香은 『醫學入門』의 處方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다만 四物湯加桃仁, 蘇木, 酒紅花는 許浚이 『醫學入門』의 處方이라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古今醫鑑』의 處方이다.

9. 勞傷腰痛

李梴은 『醫學入門』에서 “勞力하여 腎을 상한 경우는 黃芪建中湯에 當歸, 杜仲을 더하거나 또는 四物湯에 知母, 黃柏, 五味子, 杜仲을 더한 것으로 大補陰丸을 삼킨다. 熱이 있는 경우는 獨活湯을 사용한다. ○勞心한 경우는 夢授天王補心丹을 杜仲을 달인 물로 삼킨다.”¹²⁴⁾라고 하였다.

李梴은 勞傷腰痛의 原因에 대해 ‘勞力’과 ‘勞心’의 두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勞力’은 『丹溪心法』¹²⁵⁾, 『證治要訣』¹²⁶⁾ 등에서 언급하였으나, ‘勞心’은 언급한 醫家가 없다. 李梴은 ‘內傷’에서 이미 勞倦傷을 勞力傷과 勞心傷으로 나누었기 때문에¹²⁷⁾ 勞傷腰痛

見寒門)去麻黃, 加桃仁, 紅花, 木香, 檳榔, 茴香炒, 或四物湯(方見血門)加桃仁, 蘇木, 酒紅花.○腰連脇痛者, 復元通氣散(方見氣門)加木香服之.(入門)”

117) 李杲. 李東垣醫書集成·東垣試效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259. “獨活湯. 治因勞役, 腰痛如折, 重沈如山.”

118) 李杲. 李東垣醫書集成·蘭室秘藏.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30.

119) 樓英. 醫學綱目(下). 서울. 일지사. 1984. pp.1197-1210.

120) 危亦林. 世醫得效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12』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p.124-126.

121) 危亦林. 世醫得效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12』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p.124-126.

122) 허준 著. 동의문헌연구실 譯. 신증보대역 동의보감. 서울. 범인문화사. 2012. pp.782-790. “跌撲墜墮, 以致血瘀腰痛.(入門)○晝輕夜重者, 是瘀血痛也(丹心)○血滲則腰痛, 轉側如錐之所刺.(直指)○瘀血腰痛, 宜破血散疼湯, 川芎肉桂湯, 地龍散. 實者, 桃仁承氣湯.(方見寒門) 久者, 五積散(方

123) 李杲. 李東垣醫書集成·東垣試效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258-259.

124)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516. “【作勞血脈 難周養】勞力傷腎者, 黃芪建中湯, 加當歸, 杜仲. 或四物湯, 加知母, 黃柏, 五味子, 杜仲, 吞大補陰丸. 熱者, 獨活湯. ○勞心者, 夢授天王補心丹, 杜仲煎湯下.”

125) 朱震亨. 朱丹溪醫書集成·丹溪心法.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83. “腰者, 腎之外候. …… 作勞, 種種腰痛, 迭見而層出矣.”

126) 戴元禮. 秘傳證治要訣及類方. 北京. 인민위생출판사. 1989. pp.88-89. “若因勞役負重而痛, 宜用化氣散, 或普賢正氣散.”

127)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p.1334-1335. “勞倦亦有二焉, 勞力純乎傷氣而無汗者, 補中益氣之旨也. …… 勞心兼傷乎血, 而有汗者, 黃芪建中之義

에 대해서도 그 원칙을 적용하여 ‘勞力腰痛’과 ‘勞心腰痛’으로 세분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勞傷腰痛의 症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勞傷腰痛의 處方 중 獨活湯은 『東垣試效方』에서 勞役으로 인한 腰痛을 치료하는 處方으로 제시하였는데¹²⁸⁾ 李梴이 그대로 인용하였다. 黃芪建中湯 加當歸, 杜仲은 본래 『金匱要略血虛勞病脈證治』에서 虛勞 등 모든 不足證에 사용하였고¹²⁹⁾, 李梴이 勞心傷에 사용하였는데 勞力腰痛에 응용하였다. 四物湯 加知母, 黃柏, 五味子, 杜仲, 吞大補陰丸에서 大補陰丸은 『丹溪心法』에서 “腎經의 火를 제거하고 下焦의 濕을 제거하는 大補丸을 가리키는데, 氣虛에는 補氣하는 藥과 함께 복용하고, 血虛에는 補血하는 藥과 함께 복용하지, 결코 大補陰丸 단독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¹³⁰⁾ 하였다. 李梴은 이 내용에 근거하여 勞心으로 인해 血虛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大補陰丸을 四物湯 加味와 함께 복용하는 치료로 처음 응용하였다. 夢授天王補心丹은 『世醫得效方』에서 寧心保神하고 益血固精하는 데 사용한 天王補心丹¹³¹⁾을 李梴이 勞心으로 인한 腰痛에 처음 응용하였다.

許浚은 『東醫實鑑』에서 勞傷腰痛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¹³²⁾

心力俱勞, 氣血俱傷者, 雙和散之所由名也.”
128) 李杲. 李東垣醫書集成東垣試效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259. “獨活湯. 治因勞役, 腰痛如折, 重沈如山.”
129) 張仲景 著. 成無己 註. 金匱要略方論(『仲景全書』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371. “虛勞裏急, 諸不足, 黃芪建中湯主之.”
130) 朱震亨. 朱丹溪醫書集成丹溪心法.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53. “大補丸. 去腎經火, 燥下焦濕, 治筋骨軟, 氣虛以補氣藥下, 血虛以補血藥下, 并不單用.”
131) 危亦林. 世醫得效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12』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226. “天王補心丹. 寧心保神, 益血固精, 壯力強志, 令人不忘. 清三焦, 化痰涎, 祛煩熱, 除驚悸, 療咽乾口燥, 育養心氣.”
132) 허준 著. 동의문헌연구실 譯. 신증보대역 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2012. pp.782-790. “凡人失志, 則心血不旺, 不養筋脈, 氣滯腰痛, 不能久立遠行. 七氣湯, 方見氣門, 倍加茯苓, 加沈香乳香各少許, 煎服.(入門) ○憂思傷脾, 則腰痛, 忿怒傷肝, 亦作腰痛. 俱宜沈香降氣湯, 方見氣門, 合調氣散, 入薑三片, 棗二枚, 煎服.(直指)”

10. 房勞腰痛(腎虛腰痛)

李梴은 『醫學入門』에서 “色慾으로 腎을 상하여 精血이 筋을 기르지 못한다. 陰虛로 꾸준히 아프고 능히 陰器가 쇠약한 경우는 杜仲丸, 補陰丸을 사용한다. ○陽虛로 허리가 힘이 없어서 허리를 잘 쓰지 못하는 경우는 九味安腎丸에 杜仲, 鹿茸을 더하거나 百倍丸 또는 八味丸에 鹿茸, 木瓜, 當歸, 續斷을 더한 것을 사용한다. 또는 煨腎丸, 豬腎酒를 사용한다.”¹³³⁾라고 하였다.

房勞腰痛의 原因에 대해 『脈因證治』의 “房勞인 경우는 精血이 不足하여 (腎을) 滋養할 수가 없다.”¹³⁴⁾라고 한 내용에 근거하여 李梴이 응용하여 서술하였다.

房勞腰痛의 症狀 중 陰虛의 ‘悠悠痛不能舉’는 『丹溪心法』의 “腎虛인 경우는 통증이 그치지 않는다.”¹³⁵⁾에 근거하여 李梴이 응용하여 서술하였다. 房勞腰痛의 症狀 중 陽虛의 ‘腰軟不能運用’은 『東垣試效方』에서 “房室과 勞傷으로 腎虛하여 腰痛이 된 경우는 陽氣가 虛弱하여 능히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¹³⁶⁾라는 내용을 李梴이 陽虛의 症狀으로 간주하여 인용한 것이다.

房勞腰痛의 處方 중 杜仲丸은 李梴이 房勞腰痛 중 陰虛의 치료를 위해 처음으로 만들어 사용한 것이다. 補陰丸은 본래 『丹溪心法補損』에서 虎潛丸이라는 명칭으로 痿症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였는데¹³⁷⁾ 李梴이 房勞腰痛 중 陰虛의 치료에 응용한 것이다. 九味安腎丸加杜仲, 鹿茸은 본래 『三因極一

133)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516. “【房慾悠悠 或軟如】房慾傷腎, 精血不足養筋, 陰虛, 悠悠痛不能舉者, 杜仲丸, 補陰丸. ○陽虛, 腰軟不能運用者, 九味安腎丸加杜仲, 鹿茸. 百倍丸. 八味丸, 加鹿茸, 木瓜, 當歸, 續斷. 或煨腎丸, 豬腎酒.”
134) 朱震亨. 朱丹溪醫書集成脈因證治.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499. “【證】……房勞者, 精血不足, 無所榮養.”
135) 朱震亨. 朱丹溪醫書集成丹溪心法.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82. “腎虛者, 疼之不已者是也.”
136) 李杲. 李東垣醫書集成東垣試效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258. “有房室勞傷, 腎虛腰痛者, 是陽氣虛弱不能運動故也.”
137) 朱震亨. 朱丹溪醫書集成丹溪心法.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54. “虎潛丸. 治痿, 與補腎丸同.”

病證方論』에서 腎虛腰痛에 陽事不舉가 있을 때 사용한 ‘安腎丸¹³⁸⁾을 李梴이 九味安腎丸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杜仲, 鹿茸을 더하여 房勞腰痛 중 陽虛에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百倍丸은 『楊氏家藏方』에서 ‘腰膝疼痛, 筋脈拘急, 行步艱難’을 치료하는 處方으로 수록되어 있고¹³⁹⁾, 陳柱杓는 許國禎의 『御藥院方』에서 나온다고¹⁴⁰⁾ 하였지만, 어느 쪽이 옳은지 확인할 수 없다. 이처럼 百倍丸의 출처는 분명하지 않지만, 李梴이 房勞腰痛 중 陽虛에 응용하였다. 八味丸加鹿茸, 木瓜, 當歸, 續斷은 본래 『金匱要略』의 腎氣丸에 附子, 桂心을 더한 것으로, 李梴은 老人의 水火가 모두 부족하고 腎虛가 심할 때 사용하였고¹⁴¹⁾, 다시 鹿茸, 木瓜, 當歸, 續斷을 더하여 房勞腰痛 중 陽虛에 응용하였다. 煨腎丸은 虞搏이 腎虛腰痛에 사용하였는데¹⁴²⁾ 李梴이 房勞腰痛 중 陽虛를 치료하는 處方으로 인용하였다. 豬腎酒는 李梴이 房勞腰痛 중 陽虛의 치료를 위해 처음으로 만들어 사용한 것이다.

許浚은 『東醫寶鑑』에서 “脈이 大한 것은 腎虛로 인한 腰痛이다.(『丹溪心法』) ○腎虛로 인한 腰痛은 통증이 멎지 않는 것이다.(『丹溪心法』) ○지나친 房事로 인해 腎氣를 손상시키면 精血이 筋을 滋養하기에 부족하다. 陰虛하여 은은히 아프면서 허리를 들지 못하는 경우는 六味地黃元 또는 八味元에 鹿茸, 當歸, 木瓜, 續斷을 더하여 쓴다.(『東垣試效方』) ○腎虛腰痛에는 靑娥元, 加味靑娥元, 壯本丹, 局方安腎丸, 補髓丹을 쓴다. ○陽虛로 허리를 가누지 못하고 잘 놀릴 수 없는 경우에는 九味安腎丸, 百倍丸, 杜仲丸, 補腎湯을 쓴다. ○허리가 약한 것은 肝과 腎에 熱이 잠복되어 있는 것이므로 黃柏, 防己를 써서 치료한다.(『古今醫鑑』)”¹⁴³⁾이라고 하였다.

- 138) 陳無擇. 陳無擇醫學全書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58. “安腎圓, 治腎虛腰痛, 陽事不舉, 膝骨痛, 耳鳴, 口乾, 面色黧黑, 耳輪焦枯.”
139) 바이두(<http://www.baidu.com>). 2014년 4월 21일 검색.
140) 李梴 編著. 陳柱杓 解釋. (신대역)편주의학입문.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2063.
141)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2066.
142) 虞搏. 醫學正傳. 서울. 성보사. 1986. p.191. “大者是腎虛也.”
143) 허준 著. 동의문헌연구실 譯. 신증보대역 동의보감. 서

許浚은 腎虛腰痛의 脈象과 腎虛腰痛의 症狀에 대해서 『丹溪心法』을 인용하였고¹⁴⁴⁾¹⁴⁵⁾, 腎虛腰痛의 原因과 陽虛 및 陰虛의 症狀, 處方은 대체로 『醫學入門』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腎虛腰痛의 處方 중 靑娥元은 『丹溪心法』에서 腎虛腰痛에 사용한 것¹⁴⁶⁾을 許浚이 인용하였다. 補髓丹은 『東垣試效方』에서 언급한 封髓丹¹⁴⁷⁾을 許浚이 인용할 때 명칭을 고친 듯하다. 六味地黃元은 『東垣試效方』에서 腎陰虛로 인한 腰痛에 사용한 것을¹⁴⁸⁾ 許浚이 인용하였다. 局方安腎丸은 『醫學入門』에서 인용한 바가 없으나 許浚이 『醫學入門』에서 인용하였다고 잘못 기술하였다. 加味靑娥元, 補腎湯, 壯本丹은 『古今醫鑑』에서 腎虛腰痛에 사용한 것¹⁴⁹⁾을 許浚이 인용하였다. 腎虛腰痛 중 腰軟의 原因과 處方은 『古今醫鑑』의 내용¹⁵⁰⁾을 許浚이 인용한 것이다.

IV. 結 論

이상에서 『醫學入門』에 나타난 각종 腰痛에 대한 문헌 근거를 살펴보고, 아울러 『東醫寶鑑』과 관련성

을. 법인문화사. 2012. pp.782-790. “脈大者, 腎虛腰痛也.(丹心)○腎虛者, 疼之不已者, 是也.(丹心)○房慾傷腎, 精血不足養筋, 陰虛悠悠痛, 不能舉者, 六味地黃元, 或八味元(方並見虛勞)加鹿茸, 當歸, 木瓜, 續斷.(東垣)○腎虛腰痛, 宜靑娥元, 加味靑娥元, 壯本丹, 局方安腎丸, 補髓丹.○陽虛腰軟, 不能運用, 宜九味安腎丸, 百倍丸, 杜仲丸, 補腎湯.○腰軟者, 肝腎伏熱, 治用黃柏防己.(醫鑑)”

- 144) 朱震亨. 朱丹溪醫書集成丹溪心法.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82. “脈大者, 腎虛.”
145) 朱震亨. 朱丹溪醫書集成丹溪心法.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82. “腎虛者, 疼之不已者是也.”
146) 朱震亨. 朱丹溪醫書集成丹溪心法.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83. “靑娥丸. 治腎虛腰痛, 益精助陽.”
147) 李杲. 李東垣醫書集成東垣試效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258. “如膏梁之人, 久服陽藥, 醉以入房, 損其真陰, 腎氣熱, 腎氣熱, 則腰脊痛而不能舉, 久則髓減骨枯, 骨枯發爲骨痿, 宜六味地黃丸, 溫腎丸, 封髓丹之類, 以補陰之不足也.”
148) 李杲. 李東垣醫書集成東垣試效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258.
149) 龔廷賢. 龔廷賢醫學全書古今醫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292.
150) 龔廷賢. 龔廷賢醫學全書古今醫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292. “腰軟者, 肝腎伏熱, 治用黃柏防己.”

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醫學入門』의腰痛에 대한 10가지 分類와 原因, 症狀, 處方 등은 『東醫寶鑑腰痛門』에 매우 큰 영향을 주어, 10가지 腰痛 分類와 原因, 症狀, 處方 등에 대부분 반영되었다. 다른 점은, 『醫學入門』의 失志腰痛(鬱怒傷肝, 憂思傷脾), 房勞腰痛은 『東醫寶鑑』에서 각각 氣腰痛, 腎虛腰痛으로 표현하였고, 『醫學入門』의 閃挫腰痛(瘀血腰痛 포함)은 『東醫寶鑑』에서 挫閃腰痛, 瘀血腰痛으로 더욱 세분하였고, 『醫學入門』의 勞傷腰痛은 『東醫寶鑑』에서 挫閃腰痛으로 반영되어 있다.

2. 『醫學入門集例』에 의하면 「雜病篇」은 『世醫得效方』, 『丹溪心法附餘』, 『醫方捷徑』, 『醫學權輿』, 『玉機微義』, 『袖珍方』, 『仁齋直指』를 인용하였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傷寒論』, 『金匱要略』, 『三因極一病證方論』, 『諸病源候論』, 『濟生方』, 『東垣試效方』, 『脈因證治』, 『普濟方』, 『醫學正傳』, 『證治要訣』, 『醫學綱目』, 『萬病回春』, 『古今醫鑑』, 『壽世保元』 등이 인용서적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東醫寶鑑腰痛門』의 인용서적도 대체로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3. 『醫學入門』의 인용서적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處方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濕腰痛의 牛膝酒, 單角茴散, 熱腰痛에 甘遂, 牽牛子, 風腰痛에 威靈仙, 加味龍虎散, 食積腰痛의 七味蒼柏散, 閃挫腰痛의 大黃, 生薑 等分은 인용서적을 찾을 수 없다. 寒腰痛의 特徵 症狀, 勞傷腰痛의 勞心·勞力의 細分은 『醫學入門』의 인용서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이 두 가지는 李梴의 독창적인 발명에 해당한다.

또한 李梴이 『醫學入門』의 인용서적의 내용과 다르게 사용한 處方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濕腰痛의 五苓散, 青娥丸加葶藶, 熱腰痛과 食積腰痛의 清燥湯, 健步丸, 風腰痛의 烏藥順氣散加五加皮, 五積交加散, 羌活勝濕湯, 失志腰痛의 養榮湯加杜仲, 牛膝, 勻氣散, 異香散, 聚香飲子, 痰腰痛의 控涎丹, 閃挫腰痛의 桃仁承氣湯, 勞傷腰痛의 黃芪建中湯加當歸, 杜仲, 夢

授天王補心丹, 九味安腎丸, 八味丸 加味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房勞腰痛의 陽虛와 陰虛 症狀은 『醫學入門』의 인용서적 중 『丹溪心法』, 『東垣試效方』의 관점과 다르게 인용한 내용이다. 이 두 가지는 역시 李梴이 처음으로 응용한 것이므로 그의 창작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參考文獻

<論文>

1. 곽현영, 남동우, 강중원, 김은정, 김갑성, 최도영, 이재동. 고전에 나타난 腰痛 및 관련 전신 증상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2009. 26(6).
2. 김민우 외 12인. 한국과 중국 논문에서 사용된 요통 변증에 관한 고찰. 2013. 23(2).
3. 김인상, 최현, 문석재, 박호식. 脾系內科 領域에서 본 腰痛의 臨床의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1988. 9(1).
4. 김홍균. 『醫林撮要』와 『東醫寶鑑』의 비교고찰-腰痛을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2000. 13(1).
5. 성수민, 박민제, 김정옥, 황민섭, 윤종화. 十種腰痛 증 食積·濕熱 腰痛의 증례보고. 대한침구학회지. 2005. 22(4).
6. 성시열, 국윤범. 陣士鐸의 腰痛 處方研究. 대한한의학 방제학회지. 2010. 18(1).
7. 안민식, 정현영. 諸病源候論·腰背痛諸候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3. 17(3).
8. 엄동명, 송지칭, 심현아. 『醫門寶鑑』「腰痛門」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12. 25(1).
9. 염승철, 이견목, 이길승, 김성철. 東醫寶鑑의 十種腰痛에 根據한 腰痛患者의 臨床의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2005. 22(4).
10. 이태식, 박태수. 東醫寶鑑 十種腰痛의 形象醫學의 考察. 대한형상학회 학술대회논문. 2005. 6(1).
11. 정선희, 이재동, 박동석. 腰痛의 原因 및 鍼灸治療에 대한 文獻의 考察. 대한침구학회지. 1996. 13(1).

12. 정현우, 나창수, 윤여충, 정우열. 腰痛에 對한 東醫學的 病理 및 臨床治療(I). 대한동의병리학회지. 1996. 10(2). p.15, 223. pp.131-188.
18.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982, 2066. pp.1334-1335. pp.1514-1516.
19. 李梴 編著. 陳柱杓 解釋. (신대역)편주의학입문.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229, 2063.
20. 張介賓. (懸吐註釋)景岳全書.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465.
21. 張伯輿 主編. 中醫內科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pp.543-545.
22. 張仲景 著. 成無己 註. 金匱要略方論(『仲景全書』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371, 390.
23. 朱棣. 普濟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18』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122.
24. 朱震亨. 朱丹溪醫書集成·丹溪心法.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12, 153, 154, 166, 182, 183, 193.
25. 朱震亨 著. 方廣 編註. 丹溪心法附與.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598.
26. 朱震亨. 朱丹溪醫書集成·脈因證治.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499.
27. 秦景明. 症因脈治. 中國. 旋風出版社. 발행연도 미상. pp.133-145.
28. 陳夢雷, 蔣廷錫 等 著. (圖書集成)醫部全錄. 서울. 대성문화사. 1986. pp.20-22.
29. 陳無擇. 陳無擇醫學全書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54, 158, 160. pp.156-158.
30. 陳師文 等. 太平惠民和劑局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9』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498, 525, 530, 545, 557, 575, 664.
31. 허준 著. 동의문헌연구실 譯. 신증보대역 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2012. p.3. pp.782-790.
32.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7. p.259.
- <單行本>
1. 『臨床中醫內科學』編委會. 臨床中醫內科學(上). 北京. 北京出版社. 1997. p.1131.
2. 龔廷賢. 龔廷賢醫學全書壽世保元.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06, 1191.
3. 龔廷賢. 龔廷賢醫學全書萬病回春.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68.
4. 戴元禮. 私傳證治要訣及類方.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89. pp.88-89.
5. 沈金鰲. 沈金鰲醫學全書雜病源流犀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37.
6. 孫思邈. 備急千金要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3』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273.
7. 楊士瀛. 仁齋直指(『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12』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p.353-356.
8. 嚴用和. 嚴用和醫學全書重輯嚴氏濟生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57, 73.
9. 危亦林. 世醫得效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12』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226. pp.124-126.
10. 劉純. 劉純醫學全書玉機微義. 중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665-672.
11. 楊士瀛. 仁齋直指(『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12』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p.353-356.
12. 虞搏. 醫學正傳. 서울. 성보사. 1986. p.191, 194.
13. 李杲. 李東垣醫書集成·東垣試效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258-259.
14. 李杲. 李東垣醫書集成·蘭室秘藏.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30, 131.
15. 李杲. 李東垣醫書集成·脾胃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64.
16. 李中梓. 李中梓醫學全書醫宗必讀.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33.
17.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91.
- <기타>
1. 바이두(<http://www.baidu.com>). 2014년 4월 21일 검색.